

무용 콘텐츠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고찰

-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Dance Contents in Overseas expansion

- Focusing on case studies of Arts Council Korea (ARKO) international exchange support projects

안세영* (한국체육대학교 석사) · 김현남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부 교수)

Se-Young Ahn* *Korea National Sport Univ.* · Hyun-Nam Kim *Korea National Sport Univ.*

요약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를 통하여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술로서 언어를 대신하는 국제적 소통의 수단이다. 이에 정부는 1990년대부터 무용예술의 국제교류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4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다양한 무용 국제교류 활동을 소개하고, 신진 무용예술인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중에서 아르코의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 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의 무용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창작환경에서의 경험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개인의 예술적 발전 외에도 앞으로 전개될 안무가의 해외활동에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의 국제 네트워크 확장이 무용 국제교류 활동의 성과를 높이고 해당 지역으로 진출을 계획하는 신진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신진 무용예술인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한 동시대 안무가들의 다양한 국제적 행보를 기록할 수 있는 플랫폼의 개발과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받기 위한 안무가 개인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Dance is the most direct and specific art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through the body, and is a means of international communication that replaces language. Accordingly, the government has been supporting international exchanges of dance art in earnest since the 199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danc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through the international exchange support project of the Arts Council Korea for the past four years, and to discuss ways to increase the overseas expansion of new dance artists. Among them, Arko's dance cases of 'Artist Overseas Residence Support' and 'Korea Arts International Exchange Support' were examined, and the experience in a new creative environment and the network formed in the process could be a driving force for choreographers' overseas activities in addition to individual artistic development.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e expansion of an individual's international network could increase the performance of dance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and provide important information to emerging artists planning to enter the region. Accordingly, in order to exp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emerging dance artists, it was suggested that individual choreographers' efforts are needed to develop a platform that can record various international moves of contemporary global choreographers and to receive support for international exchange activities.

Key words : Overseas expansion of dance, Support for performing arts, ARKO, International exchange of dance, Support for emerging dance artists

1.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의 국제교류 지원 사업을 통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무용수 및 무용 단체의 국제적인 행보를 분석하고, 신진 무용예술인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한 ‘2020년 국제문화교류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련 종사자들은 국제 문화교류 활동의 가장 큰 목적으로 한국 문화를 발전시키고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라고 답하였다(문화체육관광부, 2021). 또한 문화예술의 상호교류를 통한 창작활동의 활성화와 문화를 통한 상호이해의 향상이 중요한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국제 문화교류의 목표는 국가의 전통성을 보존함과 동시에 새로운 문화적 자극을 받아들이고, 창작 능력을 향상시켜 각국의 특유한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문화산업은 경제적인 부가 가치를 생산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므로 국제 문화교류는 국가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도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무용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신체를 통해 표현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예술로서 언어를 대신하는 국제적인 소통의 수단이다. 그리고 무용은 인간의 심층적인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 장르이기 때문에 무용수의 움직임에서 전 세계의 공통적인 춤적 특징뿐 아니라 각국의 고유한 문화적 배경을 느낄 수 있다(고효문, 김한별, 2021). 이처럼 국제적인 교류는 무용예술 분야를 꾸준히 발전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해 온 것이다. 그러므로 무용은 모국어의 번역 과정이 거의 필요 없이 작품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는 현시대의 춤을 교류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에 시대적 감성을 담아내는 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세계의 관객들의 공감을 증대시키고 삶의 감각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김현남, 2021; 2022).

정부의 무용 국제교류 지원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위원회(ARKO, Art Council Korea)²⁾를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신설하여 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문화예술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술과 플랫폼의 발전으로 국내 무용수들의 국제교류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사업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아르코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현재 국내에서 무용의 해외진출을 지원해주는 국제교류 기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일하게 개인 무용수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아르코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국내 무용수 및 무용 단체의 활동 사례를 살펴보

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무용 국제교류 활동 지원의 필요성을 재확인함으로써 이후 신진 무용예술인들의 해외활동 접근성을 높여주는 데 의미를 가진다.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아르코의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유형과 지원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아르코 국제교류 지원사업에는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레지던스 지원(Artist in Residence)’, ‘남북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아르코 국제예술확산 지원’이 있다. 그중에서 남북 문화예술 국제교류는 공간적 특수성에 의해 그리고 아르코 국제예술 확산은 타 사업의 수상자를 지원하여 신진 예술가들의 해외진출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최근 4년간 지원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2018-2021년까지 선정된 지원자들의 특징과 무용수 및 무용 단체가 정부의 지원 아래 국제적인 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요소들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단체만을 지원하는 다른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보여주는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과 네 가지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사업인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재 활동하는 우수한 안무가들의 활동 사례들을 논의해 볼 것이다.

3장에서는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지정형 레지던스인 영국에 있는 더 플레이스(The Place)의 ‘Choreodrome’와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임펄스댄츠(ImPulsTanz)의 ‘댄스웹(WEB Scholarship)’ 프로그램을 권혁과 김이슬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에서는 4년간 수차례 해당 사업에 선정된 지원자 중 해외에 거주하며 활동하는 이정인과 국내활동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하고 있는 무용 단체 아트 프로젝트 보라(Art Project BORA)를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최근 무용예술 분야의 국제교류 활동이 진행되는 방법과 이후 무용수의 해외활동이 다층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신진 예술가들의 해외진출 부담을 줄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용 국제교류에 관해 연구하는데 필요성이 있다.

무용 국제교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지원사업의 현황을 분석하는 연구(김창분, 2008; 서연정, 2011; 강예나, 2015; 정재왕, 2015; 김영진, 2019)가 많다. 특히 정재왕(2015)의 연구에서는 ‘서울 아트마켓(PAMS, Performing Arts Market in Seoul)’을 통해 해외진출을 한 무용 단체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해외진출을 위한 무용수와 지원기관의 역할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산하기관인 아르코의 국제교류 사업에 초점을 맞춰 논의한다는 데에 차이점을 가진다. 그리고 현재 활발하게 국제교류 활동을 이어가는 국내 무용수들의 활동 사례를 다루어 봄으로써 국내 안무가의 국제활동 경험을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2) ARKO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문화예술진흥기금) 및 동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법인기관이다. 2005년 8월 관계 법령의 개정을 거쳐 한국문화예술진흥회에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2, <https://www.arko.or.kr/>). 본 연구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란 용어를 ‘아르코’로 줄여서 표기하고자 한다.

독창성을 지닌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무용이 국제적인 교류 활동에 협력하여 활동하게 된 양상에 관해 문헌 연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근 동향을 살피기 위해 온라인 조사를 도맡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예술조사 보고서를 참고할 것이다. 이후 사례조사에서는 무용 단체 및 관련 지원기관이 국내외 무용 칼럼에서 진행했던 인터뷰 자료와 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 정보들을 수집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아르코 지원사업의 현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아르코 홈페이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II. 아르코의 무용 해외진출 지원사업

‘공연예술’³⁾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상호작용하는 국제문화교류의 한 형태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부터 외교부 국제교류 재단의 설립,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아르코)을 통해 국제문화교류 활동이 증가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적 발전과 미디어 환경의 변화,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발전으로 민간단체, 종교단체 등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공연예술의 국제교류가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가장 최근의 발표한 <2020 공연예술조사>를 살펴보면 201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총 예산은 4,685억이며 이중 공연예술 분야에 지원된 금액은 2,046억으로 약 44%를 차지한다. 이 예산은 연극, 무용, 음악, 창작오페라, 전통예술 등 공연예술 분야의 공모 사업에 쓰인다.

공연예술 지원사업은 크게 창작활동 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인력 육성, 문화예술 향유지원으로 구분된다. 그중에서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는 ‘국제예술교류’ 사업은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해외 초청사업, 레지던스 지원, 국제협업, 프로모션키트 지원 등이 있다. 또한 국내 국제예술 행사나 국제교류를 주최하는 국내 기관, 예술가 개인의 발전과 남북한의 예술적 교류를 지원한다.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해마다 예산이 증가하는 예술창작 역량강화 사업과는 다르게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 동결되었다. 이러한 현황에 대하여 두 가지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첫째, 국내 행사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예산이 쓰였다. 아르코의 2018년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면 ‘지역문화 예술지원 거버넌스 개선’이란 특별연구를 보고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로 대부분의 예술 종사자들이 국내의 국제행사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해외진출 지원보다 지역문화 예술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2019년 말부터 시작된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진출의 가능 여부와 다수 국제행사의 연기 및 취소로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보다는 준비하던 공연과 극장을 잃고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된 공연예술인의 복지를 중점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9년부터 아르코에서 실행된 예술인 생활

안정자금(용자) 사업과 2020년 근로복지공단의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등 새롭게 도입된 예술인 제도들을 통해 예측가능하다.

공연예술 분야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재공연은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내 작품들은 초연되고 난 이후 국내에서 재공연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국내에서는 재공연의 대한 지원이 적고, 창작산실과 같은 큰 규모의 신작 지원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품들의 경우 진행시간과 무대 기술 인력 예산도 커지기 때문에 작품 유통 시 이동경비와 공연장 대관 비용 등의 제한점이 작동된다. 그러나 해외에서 공연을 할 경우 한 번 해외 초청된 작품은 이후에도 다른 국제 행사에 초청되어 재공연의 기회를 높일 수 있다. 이는 안은미 컴퍼니, 김복희 무용단, 아트 프로젝트 보라, 고블린파티, 시나브로기슴에 등의 단체들이 동일한 작품으로 다년간 아르코 국제교류 사업에 선정된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재공연을 통해 작품이 레퍼토리가 되면 무용 단체의 자생력이 강화되어 이후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공연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은 국내활동 지원을 넘어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국제교류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가 동시대 무용예술인에게 가치 있는 영역임을 재확인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1. 아르코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유형과 진행절차

아르코 국제교류 공모사업은 아르코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0~12월에 1차로 올라오며, 2차는 해마다 상이하지만 통상적으로 2~3월에 올라온다. 신청접수부터 결과발표까지 3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은 국내 예술가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교류 네트워크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예술가 개인의 해외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예술가가 직접 스튜디오를 발굴하여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비지정형 사업과 아르코에서 기획, 발굴한 해외 창작거점 기관에 예술가를 파견하는 지정형 사업으로 분류하여 모집한다. 먼저 비지정형은 해당 레지던스 기관의 초청장 혹은 참가 허가서가 없는 경우 지원신청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현재 무용 분야에서의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는 영국의 무용 기관인 ‘더 플레이스’와 오스트리아의 ‘임펄스탄츠’가 있다.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은 다른 국제교류 사업과 다르게 개인의 부담비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이 지원사업은 참여하는 국내 안무가에게 참가비, 왕복 항공료 및 현지 교통비 등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비자나 초청장 발급비, 보험 발급비, 현지 체재비 등은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은 국제교류 사업 중 가장 큰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즉 공동협업 작업, 사전 리서치, 초청사

3) 공연예술은 연극, 뮤지컬, 무용, 오페라, 행위예술 등 무대 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술을 의미한다. 또한 무대 위에서 관객과 직접 만나는 출연자 이외에도 무대장치(미술), 조명, 음향, 음악 등 여러 예술이 참여하는 종합예술이기도 하다. *드라마사전(김광요, 박진권, 황성근, 류용상, 김종대, 2010).*

업, 워크숍 등 중장기 국제교류 활동의 사전 준비단계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성격에 따라 6,000만 원까지 책정되며 총 소요액의 10% 이상의 개인 부담금이 필수로 지정된다. 지원항목은 항공료, 항공 운송료, 숙박비, 현지 교통비 외에도 번역비, 제작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이 포함되고 있다.

한편 국내 안무가들은 정부의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국제적인 활동을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활동에 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존재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 기관의 지원현황을 자세히 공유하고,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와 무용수들의 국제교류 활동 사례에 관한 충분한 자료를 제시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4년간의 아르코 국제교류 지원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정부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통해 최근 활발하게 국제교류 활동 중인 국내 안무가 및 무용 단체들을 파악할 것이다. 또한 여러 번 지원 선정된 안무가들의 사례를 분석해 사업에 선정된 이유와 해외진출 경로 및 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외활동 경험의 필요성과 해외진출 지원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연도별 아르코 무용 해외진출 지원사업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선정자들을 살펴보면, 최근 해외로 진출한 무용 단체들과 그들의 주요 활동지역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 사업이 선호하는 선정단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제행사 및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도별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이해

2018년 레지던스 지원 선정자를 보면, 전년도에 두 차례로 진행되었던 국제교류 공모가 세 차례로 추가 진행되면서 지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 특히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인 ‘더 플레이스’에 대한 무용수들의 관심과 지원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2019년에는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지원 양식을 추가로 제공하며 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시작한다. 2019년도 레지던스 사업의 심의 총평을 살펴보면, 사업의도에서 벗어나거나 예술적인 기대성도가 없이 단순한 연수에서 그치는 지원자들이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한다. 또한 무용 분야는 다른 공연예술 분야와 비교해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는 개인 및 단체가 유달리 많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이에 2020년부터는 기관에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여 특정 예술가가 기회를 독점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레지던스 지원사업은 신진 무용예술가들이 다양한 지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이며 동시에 국제교류 지원에 관한 무용수의 입문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 해외 거주 무용수들과 레지던스 경험이 많은 무용수들의 활동 중심으로 국제교류가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이는 과거의 활동 경뿐 아

니라 레지던스의 경험, 무용수의 외국어 소통능력이 선정 기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적 요인이 작용한 것이다.

따라서 2018~2021년까지의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심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아르코에서는 지원자의 외국어 소통능력을 우선으로 확인하면서 지원 이후에도 해외에서 활동하며 개인의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갈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단발적인 해외 경험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작품 성향을 구축하여 활동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원자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2) 연도별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이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공모 결과를 전공별로 살펴보면, 현대무용 전공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2018년에는 전체 13팀 중에서 현대무용 9팀, 발레 1팀, 한국무용 1팀 외 장르 혼합 1팀이 선정되었고 2019년에는 전체 26팀 중에서 현대무용 21팀, 발레 3팀, 한국무용 1팀 이외에 장르 혼합 1팀이 선정되었다. 또한 2020년에는 전체 25팀 중 현대무용 18팀, 2021년에는 전체 8팀 중에서 현대무용 6팀이 채택되었다. 특히 현대무용 팀 중에서는 LDP 무용단, 가림다 댄스 컴퍼니 등 대학 동문 현대무용 단체들이 꾸준히 해외진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김주빈, 이경구, 이정인 등 개인 안무가의 지속적인 지원금 선정도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개인 안무가의 해외활동에 대한 꾸준한 지원들은 개개인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국제교류의 활동에 성과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 가능하다.

한편 2020년과 2021년은 팬데믹으로 인해 국제교류 사업의 진행이 어려웠던 시기이다. 매년 진행되던 각종 국제 행사들의 연이은 연기과 취소로 개인 무용수 및 무용 단체들의 해외진출이 무산되었다. 2020년에는 심의 직전에 사업을 포기하는 단체가 발생하거나 선정된 단체의 사업 진행이 중단되는 사례가 등장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보완해 2021년부터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코로나 대안 사업 계획서’를 같이 작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다.

또한 최근에는 김현신, 조용민, 허성임, 이정인, 위보라 등 해외에 거주하는 무용가들이 여러 번 선정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특정 단체와 예술가에게 반복 지원이 되지 않도록 사업을 개선했음에도 이들이 매년 중복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은 점은 팬데믹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경험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즉 이들의 삶으로부터 체득된 유연한 수행 능력은 국제교류의 활동을 원활히 이뤄나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2018~2021년까지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정리해보면, 다른 아르코의 무용 지원사업에 비해 국제교류 부문에서는 현대무용 전공자들의 선정 비율이 특히 높다는 점, 과거의 국제활동에 관한 경력과 함께 해외 레지던스 경험과 국제 네트워크가 확립된 단체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현대무용은 미국,

유럽과의 교류를 통해 이뤄진 새로운 춤이자 국제교류를 통한 시대적 양상이 반영되는 춤이기에 국내 무용예술인 중에서도 많은 현대무용 전공자들이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려는 참여 의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안무가가 해외에 거주한 경험은 해당 지역에 관한 이해나 공연예술 관계자 혹은 아티스트들과의 밀접한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속적인 작품 활동을 위해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어 보인다. 동시에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국내 안무가들이 증가하는 현상은 국내 무용수들의 해외 네트워크가 확고하게 형성되어가는 과정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경험이 있는 단체는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 계속적으로 국제교류의 활동에 접근이 용이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교류 지원사업은 개개인의 국제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고 교류의 방법을 다양하게 발전시키는 가능성을 열어 낼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본 절에서 살펴본 연도별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근거로 하여 사례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지정형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최근 자료인 더 플레이스의 김이슬과 임펄스댄스의 권혁의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 예술 국제교류 지원에서는 국내활동을 기반으로 국제교류를 진행하는 무용 단체인 아트 프로젝트 보라와 해외 거주 안무가로 국제협업 작업을 진행하는 이정인의 활동 사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교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안무가들의 해외진출 경로와 해외활동의 성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I. 아르코 무용 해외진출 지원 사례

1.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 사례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사업목적은 개인의 무한한 예술적인 발전과 동시에 이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이후 장기적인 국제교류의 작업으로 발전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르코의 지정형 무용 레지던스 프로그램 중에서도 가장 최근의 레지던스 사례인 2019년 오스트리아의 임펄스댄스에서 진행되는 ‘댄스웹’의 참여자 권혁과 2018년 영국의 더 플레이스에서 이뤄지는 ‘Choreodrome’의 참여자인 김이슬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에서 수차례 지원을 받은 개인 안무가의 레지던스 경험이 이후 안무가의 작품 성향이나 국제활동에 주는 영향에 관해 논의할 것이다.

1) 임펄스댄스의 ‘댄스웹’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진행되는 ‘댄스웹’은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현대무용 축제인 임펄스댄스 페스티벌(ImPulsTanz-Vienna International Dance Festival)과 함께 매년 7-8월에 진행되는 5주간

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댄스웹은 전해 12월에 각국의 댄스웹어(dancewebber, 댄스웹에 참여하는 사람)를 모집하며, 해마다 60여 명의 신진 안무가와 무용수를 선정한다. 댄스웹어의 후보들이 선정되면 멘토들이 직접 서류를 보고 댄스웹어를 선택한다. 댄스웹의 멘토로 참여한 안무가들로는 빔 반데케이부스(Wim Vandekeybus), 크리스 하링(Chris Haring), 앤 주렌(Anne Juren) 등이 있다. 또한 임펄스댄스에서는 마기마랭(Marguy Marin), 제롬 벨(Jerome Bel), 로사스 무용단(Rosas Company) 등과 같은 세계적인 무용 단체의 공연도 관람할 수 있다. 레지던스 참여 기간 중의 멘토의 명단과 감상하는 공연의 안무가들은 모두 동시대적인 감각과 현실에 관한 예리한 시선을 통해 새로운 안무작업을 펼쳐나가는 컨템포러리 댄스 안무가들이다. 이를 통해 이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예술적인 감성이 얼마나 최근의 무용예술계의 동향을 담고 있는지 엿볼 수 있다.



그림1. 2019년 댄스웹어들 (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eng/international/kwonhyuk>)

댄스웹어로서 참여했던 권혁⁴⁾은 댄스웹 내에서는 댄스웹어 선발 시에 나이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실제 댄스웹어들의 나이가 가이드라인과 크게 상관없이 선발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펄스댄스 페스티벌만큼 댄스웹도 이전부터 그 명성이 높았고, 이에 국내에서도 2006년에 김영진을 기점으로 2021년까지 서영란, 이은경, 장혜진, 박진영 등 8명의 무용수가 해당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댄스웹 프로그램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째 주에는 페스티벌 전에 멘토와 시간을 가지고 춤을 공유하며 네트워킹을 형성해 나간다. 2-4째주에는 신청했던 워크숍과 공연을 관람한다. 이때 댄스웹어들은 평균적으로 하루 2-3개의 워크숍과 2편 이상의 공연을 관람한다. 또한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움직임의 공유하는 시간인 ‘댄스웹 살롱’이라는 프로그램에도 필수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마지막 주에는 첫째 주와 마찬가지로 멘토와 시간을 보내며 레지던스 기간 동안 변화된 생각이나 춤 혹은 결과물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댄스웹은 대규모의 프로그램인 만큼 움직임 수업, 안무 수업, 즉흥, 힙합, 드라마투르기(Dramaturgy) 등 수업의 종류가 다양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업 외에도 강사와 움직임을 연구하거나 강사의 지도하에 개인 작업을 발전시켜나가는 ‘필드 프로젝트’도

4) 본 연구에서는 아르코의 지원을 통해 댄스웹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여자들 중에 가장 최근 사례인 권혁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권혁은 2014년 동아무용콩쿠르의 수상자이자 2014년 창단된 현대무용 단체 시나브로 가숨에(Company of SIGA)의 대표이다. 시나브로가숨에는 창단 이후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며, 그중에서 권혁의 작품으로는 <Cittaslow>(2018), <While>(2019), <Zero>(2020)가 있다.

살펴볼 수 있다.

댄스웹 프로그램의 장점은 세계 각국의 댄스웹버들이 같은 기사를 쓰기 때문에 워크샵 과정, 공연 관람 후기, 개인 작품에 대해 대화할 충분한 시간이 제공된다는 점이다. 댄스웹 프로그램에 참여기간 동안 하루 9시간 이상 춤을 추었고, 3-4시간 정도 공연을 관람하며 전공에 대해 몰입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고 권혁은 회고했다. 그리고 임펄스탄즈 댄스웹의 커리큘럼 외에도, 레지던스 참여 이후 댄스웹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무용단들의 오디션을 보거나 때로는 작품에 캐스팅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도 한다. 이 같은 예술적인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댄스웹 프로그램은 현재 춤의 흐름을 파악하며 다양한 예술가들과 적극적인 교류를 희망하는 다른 예비 지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되고 있다.

특히 레지던스 기간 중 이뤄지는 공연 관람은 안무가들을 댄스웹버로서의 역할에서 관객의 역할로 전환시킨다. 이 과정 안에서 참가자들은 리서치 기간 동안 안무가에서 관객으로, 또는 관객에서 안무가로 경계를 허물며 다양한 작품에 접근한다. 이는 현재 춤의 흐름을 경험하는 동시에 지원사업의 최근 동향과도 맞닿아 있다. 동시대의 안무가가 리서치를 통해 얻은 정보와 자료를 창작 실험의 일환으로 삼고, 작품이 완성되기 이전부터 퍼포먼스를 올리는 공연 형태를 레지던스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활동을 토대로 안무가의 창의적인 발상을 관객이나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과 교류하는 것은 이후 본 공연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효과를 가진다.

즉 레지던스 기간 동안의 공연 관람은 최근 안무가의 리서치 작업과의 연장선상에서 이해 가능하다. 이것은 안무가 개인의 상상력에서 그치지 않고 공연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의 작품 개입을 요구하며, 마지막 주에 공유하는 결과물의 효과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리고 권혁의 사례를 통해 해당 레지던스에서는 전 세계 60명의 젊은 안무가들과 교류하며 근래 리서치 작업 흐름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례를 통해 변화무쌍한 최근 춤의 새로운 안무 방법으로써의 발전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해외 레지던스 경험은 안무가의 안무체계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권혁이 속해있는 단체 '시나브로 가슴에'는 2019년 댄스웹 레지던스 이후에 제작된 작품들 중 직접 안무한 <While>, <Zero>, <해탈> 등의 작품으로 현재까지 일본, 중국, 독일, 벨기에,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영국 등 다양한 국가와 국제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는 이 단체만의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품 성향이 굳혀지며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와 같이 레지던스 참여 후의 활동 사례를 보며 레지던스 참여의 중요성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더 플레이스의 'Choreodrome'



그림2. 더 플레이스
(출처: 더 플레이스 홈페이지 <https://www.theplace.org.uk/findus>)

더 플레이스는 영국 런던 중심부에 위치한 무용기관이다. 이곳은 극장뿐 아니라 BA(Bachelor of Arts) 3년 코스와 MA(Master of Arts) 1년 코스가 있는 전문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5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이 기관은 해외 초청공연,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움직임 프로그램, 신진 무용수와 안무가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에 있는 무용 전용 공연장들의 네트워크인 EDN(European Dance house Network)의 회원이고, 런던에서 열리는 국제 무용 축제인 '댄스 엄브렐라(Dance Umbrella)'가 개최되는 주요 장소이기도 하다. 이 기관의 상주 단체는 더 플레이스의 예술 감독인 리처드 알스톤(Richard Alston)이 이끄는 무용단 리처드 알스톤 댄스 컴퍼니이다. 국내에서 더 플레이스에 초청된 무용 단체는 LDP 무용단, 모던테이블, 고블린파티, 아트 프로젝트 보라 등이 있다. 2018년부터는 주영한 국문화원과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코리아 댄스 페스티벌(A Festival of Korean Dance)'을 더 플레이스에서 진행하면서 새로운 관객을 유입하는 동시에 국내의 인지도를 구축하고 있다.

'Choreodrome'은 더 플레이스의 리서치와 작품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다. 매년 7-9월 2주 동안 더 플레이스에서 체류하며 안무가가 새로운 작업을 창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 자격은 학사 졸업 이후 전문 자격이 최소 3년 이상 되는 무용수 및 안무가로 나이 제한은 없다. 선발 과정은 아르코에서 5인 이내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이후에 영문 신청서와 인터뷰 심의를 거쳐서 더 플레이스에서 최종 1인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Choreodrome은 크게 두 가지 활동으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첫 주에는 참여 안무가들이 관객에게 공연을 선보이는 'Touch Wood', 둘째 주에는 작품 피드백과 스튜디오 안에서 안무가들이 일반 관객들과 리서치 과정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Studio Sharing'이 진행된다. Touch Wood는 18명의 안무가들이 3일 동안 약 15분씩 공연을 하고, 공연 이후에는 기관 내의 훈련된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들의 피드백이 함께 진행된다. 이 과정은 국내에서 공연 후에 진행되는 '관객과의 대화'와 같이 시공간이 지정되고, 당일에 공연을 관람한 관객이 질문하면 안무가 및 출연진이 답변하는 형식과는 차이가 있다. 퍼실리테이터는 리서치 과정에서 자유롭게 개입하여 작품의 변화를 유도하는 피드백을 공유함으로

써 차별성을 갖는다. 김이슬⁵⁾은 이 과정에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작품에 대해 확장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다고 회고했다.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단기간에 춤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기존의 전통적 무용 환경에서 추구하던 안무가, 무용수, 관객의 수직적인 관계를 탈피해 개인의 역량뿐 아니라 평등한 관계 안에서 함께하는 공동체적 경험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새로운 창작환경에서 해외 관객들로부터 다채로운 해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낸다. 또한 다른 지역의 레지던스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전통적 테크닉 체계 안에서의 움직임 연구에만 몰두하지 않고 리서치 과정과 다양한 플랫폼 등을 활용한 안무작업을 이뤄나가는 토대를 다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해외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에 참가자는 다양하게 열린 경험을 통해 예술에 관한 시각을 확장하며,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가능성을 향상시킨다.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현재 춤 무대 위에서 자신만의 독창적인 안무를 생성하는 가능성을 얻게 되는 것이다.

2.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례

1)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사례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대표이자 안무가인 김보라가 본인을 주축으로 객원 무용수, 책임 프로듀서, 협력 아티스트들을 아우르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컨템포러리 무용을 기반으로 미술,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수용하며 개성적인 표현 언어를 개발하는 것을 지향한다.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대표작으로는 <A Long talk to oneself>(2012), <꼬리언어학>(2014), <소무>(2015), <무약>(2018) 등이 있다.

김보라가 2018년에 초청된 포츠담 탄츠타게(Potsdamer Tanztage)는 1991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독일의 국제 현대무용 축제이다. 해마다 포츠담시와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공연, 워크샵, 레지던스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축제에 초청된 국내 안무가로는 안은미, 전홍렬, 노경애 등이 있다.



그림3. 포츠담 탄츠타게 로고 (출처: Potsdamer Tanztage 홈페이지, <https://www.fabrikpotsdam.de/>)

2018년에 초청된 아트프로젝트 보라의 <꼬리언어학>은 국제무용협회가 주관하는 '서울세계무용축제(SIDance)'에서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동물의 꼬리 언어와 제스처의 상징체계를 움직임의 모

티프로 위선적인 교양주의와 언어의 해석적 오류를 풍자하는 작품이다. 이 공연은 국내 축제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각국의 국제무용축제 관계자들에게 주목을 받으며 해외로 초청되었다. 이처럼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국내 국제교류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외로 진출한 사례로서, 국내 국제무용축제와 세계 무용 축제들 간에 네트워크 형성이 잘 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례이다.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꼬리언어학>으로 이탈리아, 브라질, 미국 워싱턴 D.C 등 다양한 국가와 도시에서 초청되었다. 특히 2018년에는 아르코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인 'ARKO-P AMS 협력 지원',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에 모두 선정되었다.



그림4. 포츠담 탄츠타게에서 초청된 작품 <꼬리언어학> (출처: 아트 프로젝트 보라 홈페이지, <https://www.borarts.com/>)

김보라는 해외 무용단 생활을 통해 무용수로서의 움직임과 단체 운영방식을 익힐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해외진출 경험은 국내에서 활동하는 신진무용가들에게 안무 감각을 일깨우고 안무가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김보라와 같이 해외 무용단 입단과 국내 국제무용 축제를 활용하는 방법은 현재 신진예술인들이 해외진출을 위해 가장 많이 고려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입단 준비 및 작품 제작 기간 동안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입문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국제행사에 작품을 올리는 신진 안무가의 경우, 주최측에서는 선정된 작품의 공연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후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즉 안무가는 해외활동에 있어서 세계 각 지역 교류 활동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행사 주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예술 국제교류 신청 시 신청자의 역량을 30%의 비율로 보는 점에서 알 수 있다.

2021~2021 중반까지 코로나로 혼란을 겪었던 시기 동안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해외 초청공연 및 국내 대면 공연을 진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SIDance에서 무용수가 COVID-19 상황에서 겪었던 경험을 담은 댄스필름 <The Body, Reset to Zero>(2020)을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공개하며 기존과 다른 국제교류 방안을 제시하였다.

5) 본 연구대상인 김이슬은 아르코 지정형 프로그램인 '더 플레이스'의 2018년 참여자이다. 2019년에 창단된 공연예술 단체 몸플레이(MOOMPLAY)의 대표이자 안무가이며, 3D 모션 그래픽, 댄스 필름과 같은 융복합적인 창작 작업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다. 김이슬의 대표작으로는 <코끼리 가방에: An elephant in the room>(2016), <Cross-Eye HD>(2018), <빈공간 BIN 프로젝트>(2020) 등이 있다.

국립 현대 무용단과 협업하여 제작한 댄스필름 <시간의 흔적> (2021)은 ‘부산 국제 단편영화제’에서 예술성을 인정받으며 안무가의 활동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우수한 작품의 해외진출 및 공연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작품 유통 및 재공연율과 연관이 있는 국제교류 활동에서 지원자 및 지원 기관의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함을 재확인할 수 있다.

2) 이정인의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례

안무가 이정인은 2010년부터 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등 유럽을 오가며 국제교류 및 다양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해 온 안무가이자 현대 무용가이다. 현재 오스트리아 린츠에 거주하며, 레드사파타 춤 공장(Redsapata Tanzfa brik-Linz)의 상주 안무가 및 협업 예술가로 활동하고 있다. 대표작으로는 <Skins>(2015), <Runner's high> (2018), <나는 준비되었어 I feel like I'm ready>(2019), <Wandering Islands>(2020) 등이 있다.

ARS ELECTRONICA

그림 5. 오스트리아 린츠에 있는 ARS Electronica Center 로고
(출처: ARS Electronica 홈페이지, <https://ars.electronicart/>)

ARS Electronica Center는 1979년에 설립된 세계적인 미디어 아트 기관이다. 매년 9월 예술, 기술, 사회의 융복합을 보여주는 세계 최대 규모 전자예술 축제인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축제(Ars Electronica Festival)’를 개최하고 있다. 이 축제는 각국의 예술가, 과학자 그리고 기술자들이 모여 첨단 예술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이기도 하다. 2018년 기준 10만 5천 명의 관람객이 페스티벌을 위해 오스트리아 린츠에 방문했으나 2020년은 팬데믹으로 120개의 참여 기관이 전시와 공연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국내에서는 주로 미디어 아트 작가들이 축제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해당 행사는 국내 기업인 현대자동차에서 의전 진행 차량을 지원해주는 등 국내외로 큰 관심을 받는 국제행사이다. 무용 장르로는 국내에서 이정인이 AR(Augmented Reality)과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등이 융복합된 작품 <AR Motivation>으로 처음 아르스에 입문하게 되었다.

2020년 아르스 페스티벌 초청 당시 연이은 국내 공연과 정부지침으로 인해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였다고 안무가는 회고했다. 당시 코로나로 입출국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현지에는 무용수 한 명과 오스트리아 협업 기술 팀 ‘DARV’가 대면으로 공연에 참여하였고,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무관객 공연으로 준비되었다. 시기적으로 국제 무용 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고 있었지만 아르스의 경우 미디어 융복합 축제인 만큼 행사를 계속 진행시켜야 된다는 관계자들의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회고했다. 아르스는 언택트(Untact), 무관중이라는 상황에서도 공연 및 각종 부대행사를 모두 성공적으로 마치며 언택트 작업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림 6. ARS Electronica에 초청된 작품(<I sense, therefore I am>)
(출처: ARS Electronica 홈페이지, <https://ars.electronicart/>)

이처럼 최근에는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센터와 같이 기술과 문화예술 전 분야의 발전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나 기업, 복합문화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실제와 가상이 창조적으로 결합되는 작품을 통해 기술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과 더불어 예술가에게는 창작활동에 기회를 확대할 수 있고, 문화예술의 발전적인 시도도 제안할 수 있다. 특히 관람하는 관객에게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경험과 영감을 제공한다. 이정인은 아르코에서의 인터뷰를 통해 어린 관객들이 이미 기계나 플랫폼을 다루는데 익숙하며 AR, 프로젝션 맵핑(Projection Mapping) 등과 같은 첨단 기술에 거부감 없이 적극적으로 체험한다고 회고했다. 앞으로의 차세대 주 관객층이자 기술과 예술을 선도할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새로운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융복합 무용 작업이 발전할 수 있는 꾸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정인은 상주하고 있는 레드사파타 무용센터와 린츠 디자인 예술 대학(Kunst universität Linz) 등의 기관에서 진행되는 협업들이나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작업을 이루어왔다. 이처럼 최근 국내 무용수들의 국제적인 교류 활동은 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환경적인 변화를 반영해 네트워크의 형성을 지원해주는 기관에서도 각 지역별로 다양한 예술가들과 지원자의 활동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라 아트 프로젝트 보라와 이정인은 최근 4년간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을 여러 번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이 두 사례의 활동영역과 이후 단체의 활동 방향에 대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아트 프로젝트 보라는 댄스필름, 온라인 무용플랫폼 등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 국제교류 활동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이정인은 해외에서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세계의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와 협업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는 국제활동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일어난 비대면 국제교류의 활동사례는 기술과 매체의 발전을 활용해 증가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경계 없이 동시적으로 소통 가능한 현시대에 끊임없이 발전하는 국제교류의 방법에 관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아르코의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관한 사례조사 과정에서 지원 선정된 단체의 공연 사진 및 해외활동을 준비할 때에 필요한 세부적인 자료나 작품의 리서치 과정을 담은 영상 자료 등이 공적으로 제공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 국내 무용예술계에

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해외진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연의 횟수, 행사의 규모, 협업작업의 경우에 참여하는 무용수의 국적에 따른 출연료의 측정과 규정 그리고 안무가에게 책정되는 안무비 등 세부적인 가이드를 정하는 방향에 관한 논의가 더 체계화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무용 사례를 통해 동시대에 해외로 진출한 무용수 및 무용 단체의 국제적인 행보를 살펴보았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이기 때문에 국제교류에서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 또한 무용사적으로도 무용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해왔다. 이에 국내 무용 단체들은 1990년대부터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 아래 국제행사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여주었으며 국내 무용수 및 무용 단체들은 우리나라 무용예술의 우수성을 세계로 전파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무용 국제교류 지원은 글로벌한 시대에 맞추어 변화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국내의 문화예술 전반을 지원하는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국제교류 지원사업을 분석함으로써, 무용 국제교류 사업의 진행 과정과 해외로 진출한 국내 무용수의 국제적인 행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후 신진 무용예술인의 해외진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르코의 국제교류 지원사업 중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과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의 최근 4년간 무용 사례는 현재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무용수들의 해외 활동사례와 국제적 행보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두 지원사업에 수차례 선정된 지원자들의 특징도 찾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 지원사업의 지정형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레지던스 사업은 단기간에 춤에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 및 작업성과를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안무가나 관객이 아닌 동료로서 국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안무가의 심적 부담을 줄여준다. 권혁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례를 통해 레지던스에서 진행했던 리서치 과정들은 안무가에게 변화무쌍한 최근 춤을 경험하게 하고, 개인의 안무방법을 발전시킬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만족감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김이슬의 레지던스 프로그램 사례에서는 새로운 창작환경에서 해외 관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해외 레지던스 경험이 있는 안무가들은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활동 방향을 국제교류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무용예술인의 해외 레지던스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의 최근 4년간의 선정 결과 중에서도 현대무용 단체이자 해당 지원사업에 다년간 선정이 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중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안무가

와 국내활동을 기반으로 국제교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단체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탐색할 수 있었다.

먼저 무용 분야에서 국제교류 활동은 작품의 재공연을 의미한다. 아트 프로젝트 보라의 사례와 같이 국내 작품을 해외에서 재공연함으로써 단체는 자생력을 높이고, 개인으로서의 안무체계, 단체로서의 작품 레퍼토리를 확립해 나아갔다. 또한 이정인과 같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안무가의 지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국제 네트워크의 확장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열어줄 수 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방법이 다양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최근 국제교류 안무가들의 활동에서 무용 행사 외에도 기술 융복합, 댄스 필름 등과 같은 장르의 융합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해외진출 영역의 확장으로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교류하는 무용예술인들의 국제교류 활동 현황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예술가 해외 레지던스’와 ‘한국예술 국제교류 지원’ 사업에 관한 네 가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동시대에 왕성한 국제교류의 활동을 이어가는 국내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에 관해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무용예술은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지역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왔다. 둘째, 아르코의 최근 국제교류 지원사업의 사례를 통해 국내 무용예술인들의 국제적인 행보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셋째, 해외 진출 사례를 통해 새로운 창작환경에서의 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네트워크가 개인의 예술적 발전뿐 아니라 추후 안무가가 해외 활동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다.

그러므로 글로벌한 동시대 안무가들의 다양한 국제교류 활동사례와 성과를 기록하고, 신진 무용예술인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이 중요한 지점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앞으로 국내 무용수들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되기 위해 국내 국제교류 지원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 선정자들의 해외활동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신진 무용가에게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 기관과 협약이 된 해외기관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지원선정에 있어 필요한 자질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즉 신진 안무가의 해외진출에 있어서 개인적 차원에서는 우선으로 외국어 소통 능력을 길러야 한다.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행사와 주최기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무용 작업에 대한 계획을 문서화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단발적인 해외활동에 그치지 않도록 국내외 국제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국내 기관 차원에서는 활동 경력이 적은 신진 무용수들이 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외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본 연구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단체의 해외활동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대상 설정에 제한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아르코와 같은 국제교류 지원기관에서는 지원사업 선정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고,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연구와 같은 해외진출 활성화 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기술과 환경에 따라 빠르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 무용 국제교류 활동을 대비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가 무용예술인들의 해외진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설계하는 하나의 기초 토대로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강예나(2015). **국제문화교류사업 운영기관 효율성 분석**.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광요, 박진권, 황성근, 류용상, 김종대(2010). **드라마사전**. 문예림
- 김영진(2019). **현대무용수의 해외 진출을 위한 활성화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창분(2008). **무용공연 국제교류의 유형별 현황과 지원 실태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남(2018). **컨템포러리 춤에 나타난 공감과 소통으로의 내러티브-자비에 르 로이의 「다른 상황에서의 산물」을 중심으로- 대한무용학회논문집 76(1)**, 41-58.
- 김현남(2021). 알렉산더 에크만의 「놀이 Play」에 나타난 랑시에르의 미학적 사유. **스포츠사이언스 39(2)** : 141-149
- 김현남(2022). 비표현성과 우연성의 조우 - 커닝엄의 들뢰즈 사진 개념을 중심으로. **스포츠사이언스 40(1)**: 171-179.
- 고효문, 김한별(2021). 중국 무용수의 공연루틴. **스포츠사이언스 39(2)**, 217-230.
- 박양선(1999). **국제무용교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연정(2011). **국제무용 교류의 현황분석과 활성화 방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진주(2016). 한국 사설무용공연단의 국제적 활동 전개양상. **무용역사기록학 43**, 35-52.
- 이나현(2012). **유럽 컨템포러리 댄스에 나타나는 몸에 대한 시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원(2019). 영상 속 춤과 미적 사유. 두술.
- 정재월(2015). 한국 무용의 해외 진출 양상 및 활성화 방안 -서울아트마켓(PAMS)을 중심으로. **무용예술학연구, 56(5)**, 91-107.
- 장수혜, 장웅조(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공연예술 국제교류 경험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가를 중심으로**. **무용역사기록학, 63**, 31-51.
- 정정숙(2012). 국제문화교류 진흥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최석규(2008). 아시아 지역권 공연예술교류의 현재와 전망. **한국문화예술 경영학회 학술대회 2008(1)**, 75-83.
- 최연승(2012). **국내 무용전공자의 해외진출 인식과 동기**.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문정, 김용은(2013). 국제 무용제의 정치 외교적 동향과 성과 및 과제. **한국사회체육학회지 53**, 81-95.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https://www.arko.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9 연차보고서
<<https://www.arko.or.kr/>>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0 공연예술조사보고서
<<https://www.arko.or.kr/>>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main.jsp>>